

한방병원에 내원한 산후병 환자의 특성 및 증상에 대한 분석

¹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 의학과,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황영식¹, 박남춘¹, 이진욱¹, 양혜린¹, 박승혁², 황덕상², 이진무², 이창훈², 장준복²

ABSTRACT

Analysis on Outpatients with Postpartum Disease at the Korean Gynecology Clinic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Young-Sik Hwang¹, Nam-Chun Park¹, Jin-Wook Lee¹, He-Rynn Yang¹, Seung-Hyeok Park²
Deok-Sang Hwang², Jin-Moo Lee², Chang-Hoon Lee², Jun-Bock Jang²

¹Dept. of Clinical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²Dept. of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outpatients with postpartum disease and provide a treatment instruction in the clinical field.

Method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outpatients with postpartum disease, We searched medical records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17 using Z34 (Supervision of normal pregnancy), O94 (Sequelae of complication of pregnancy), U327 (産後風) and 388 postpartum patients were analyzed.

Results: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re as follows. The average age was 33.73±3.62 years old, 356 (91.75%) patients are full term pregnancy, 201 (51.81%) patients are first delivery, 79 (20.36%) patients had past history of abortion and 63 (16.24%) patients had past history of gynecologic disease.

2. The most subjects visited in April (10.31%). The mean duration from delivery date to visiting date was 131.5±214.6 days. The mean number of visits after the initial visit was 1.91±1.7.

3. The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pregnancy and delivery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subjects take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was 19 (4.9%) and suffering from gestational disease was 28 (7.22%). The mean body weight difference between full term pregnancy and visiting date was -8.24±3.57 kg. The number of subjects discharging lochia on visiting date was 167 (43.04%) and breastfeeding was 262 (67.53%).

4. The most chief complaint was arthralgia in 217 (55.93%) followed by general weakness, cold sensation, edema, sweating disorder, dizziness, lower abdominal pain, digestion disorder, heat sensation, defecation disorder and urination disorder.

5. The most accompanied symptom was arthralgia in 322 (82.99%), followed by sleep disorder, cold sensation, general weakness, sweating disorder, defecation disorder, edema, dizziness, digestion disorder, urination disorder, lower abdominal pain and heat sensation.

6. A total of 356 subjects were taken herbal medicine. The most prescribed herbal medicine to subjects was *Gungguijohyeol-eum-gamibang* (29.59%).

Conclusions: These results could be helpful to diagnose and treat postpartum patients in Korean gynecologic clinical fields.

Key Words: Korean Gynecology, Outpatient, Postpartum Patients, Korean Medical Treatment

I. 서론

출산 후나 산욕기에 산모에게 발생하는 분만이나 산욕과 관련된 질병을 총칭하여 산후병이라 한다¹⁾. 산후병의 치료 여부에 따라 임신 전 건강상태로의 회복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많은 연구들에서 산후병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

30세 이상 고령 출산의 증가, 고위험 임신부의 증가, 불임시술로 인한 다태 임신 증가 등으로 산후의 의료적 개입 및 관리의 전문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³⁾. 실제로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산후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 여성의 산후 조리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산후조리원의 상업화,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 산후 조리원 뿐만 아니라 우 등⁵⁾의 연구에서 한방부인과 외래 환자 4,677명을 연령대별로 분석하였을 때 출산 연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 30대가 전체 환자의 58%를 차지하고 20대, 30대 질환 분포에서 산후병이 각각 2위, 1위인 것으로 보아 출산 후 여성들의 한방 치료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산후병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산후질환에 관한 임상 보고⁶⁾, 한의치료를 받은 산모의 산후 6주간 증상에 대한 전향적 관찰 연구⁷⁾와 관절통⁸⁾, 골반통⁹⁾, 유산 후 발생한 산후풍¹⁰⁾ 등의 치험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산후병의 치료에 대한 현황 보고 연구로는 2010년 일개 한방병원에 산후풍으로

내원한 환자 104례를 분석한 연구¹¹⁾가 있었으나 표본의 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한방 부인과 임상 현황 보고 연구로는 2017년 서울시 강동구 소재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을 분석한 연구⁵⁾가 있으나, 산후병 환자의 세부적 특성에 대한 분석 없이 외래 환자군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산후병으로 내원한 환자에 특정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한방병원에 산후병으로 처음 내원한 산모 388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특성과 산후병 증상을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은 바 이에 대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후병 치료를 목적으로 ○○대학교 한방병원 여성의학센터에 처음 내원한 산모를 상병 코드 Z34(Supervision of normal pregnancy), O94(Sequelae of complication of pregnancy), U327(産後風)으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441명이 산후병으로 내원하였으며, 이 중 산과적 기록이 분명한 388명을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치료의 방향성이 다른 질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신 또는 출산과 무관한 질환으로 내원 후 산후병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대학교 한방병원 여성의학센터 외

래 초진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내원한 산모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 내원 시기의 특성,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특성, 산후병 특성의 네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산모의 연령, 재태 기간, 초산 여부, 유산의 과거력, 부인과 질환의 과거력을 분석하였으며, 내원 시기는 내원일, 출산일로부터 내원까지의 기간, 초진 이후 평균 내원 횟수를,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특성은 보조 생식술

시행여부, 임신성 질환의 이환 유무, 산모의 체중 변화, 분만 형태, 내원 당시의 오로 배출 유무 및 모유수유 여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후병 관련 특성은 구 등⁶⁾의 산후 질환에 관한 임상보고를 참고하여 환자가 실제로 호소하는 산후 제반 증상을 토대로 주소 뿐 아니라 복수 응답의 형태로 동반증상을 분석하였으며 추가로 한방 치료와 다빈도 한약 처방을 분석하였다(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Subjective Complaints in Postpartum Patients

Classification	Subjective complaints
Arthralgia	• Pain of all sites including shoulder, lumbar region, sacral region, knee, wrist and fingers
Lower abdominal pain	• Pain of lower abdominal sites
General weakness	• Fatigue, lethargy, lack of motivation, tiredness
Edema	• Swelling or stiffness in any sites of body region
Sweating disorder	• Sweating a lot in any sites of body region
Dizziness	• Feeling dizziness
Cold sensation	• Feeling coldness in any sites of body region
Heat sensation	• Feeling heat in any sites of body region
Digestion disorder	• Bloating, nausea, vomiting, heartburn • Upper abdominal pain
Sleep disorder	• Failure to fall a sleep, light sleep • Difficulty in maintaining sleep, dreaming a lot
Defecation disorder	• Constipation, diarrhea • Fecal incontinence, hematochezia
Urination disorder	• Feeling of residual urine, urinary incontinence • Dysuria, urinary frequency

III. 결 과

1. 일반적 특성

1) 연 령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33.73 ± 3.62세였으며 최소 연령은 만 22세, 최고 연령은 만 47세였다. 연령 별로 분류하였을 때 20~24세는 4명(1.03%), 25~29세

는 41명(10.57%), 30~34세는 193명(49.74%), 35~39세는 123명(31.70%), 40~44세는 26명(6.70%), 45세 이상은 1명(0.26%)이었다 (Table 2).

2) 재태 기간

연구 대상자 중 재태 기간이 37주 이상이었던 산모는 356명(91.75%), 재태 기간이 20주~37주였던 산모는 32명(8.25%)이었다(Table 2).

3) 초산여부

연구 대상자 중 초산으로 내원한 산모는 201명(51.81%), 두 번째 출산으로 내원한 산모는 171명(44.07%), 3회 이상의 출산으로 내원한 산모는 16명(4.12%)이었다(Table 2).

4) 유산의 과거력

연구 대상자 중 유산의 과거력이 없는 산모는 309명(79.64%), 1회 유산의 과거력이 있는 산모는 55명(14.18%), 2회 유산의 과거력이 있는 산모는 17명(4.38%), 3회 이상의 유산의 과거력이 있는 산모는 7명(1.80%)이었다(Table 2).

5) 부인과 질환의 과거력

연구 대상자 중 부인과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산모는 총 63명(16.24%)이었으며, 5명의 산모에서는 두 가지 부인과 질환의 과거력이 있었다. 자궁근종이 18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자궁내막증 11명(2.86%), 다낭성 난소 증후군 8명(2.08%), 자궁 경부 이형성증, 난소낭종이 각각 5명(1.30%), 자궁 선근증, 자궁경부무력증, 유방의 양성종양이 각각 4명(1.04%), 자궁 내 폴립, 자궁경부염이 각각 2명(0.52%)이었으며 자궁 내 유착, 난관 협착, 유방의 악성종양이 각각 1명(0.26%) 순이었다(Table 3).

Table 2. The Number of Postpartum Patients Classified by General Items for 3 Years

Item		2015	2016	2017	Total	Percentage
Age (year)	20-24	0	3	1	4	1.03
	25-29	16	14	11	41	10.57
	30-34	76	62	55	193	49.74
	35-39	37	56	30	123	31.70
	40-44	10	7	9	26	6.70
	45-	0	0	1	1	0.26
Gestational age (GA)	GA (wk) ≥ 37 wk	127	130	99	356	91.75
	20 ≤ GA (wk) < 37	12	12	8	32	8.25
History of delivery	First	74	66	61	201	51.81
	Second	60	71	40	171	44.07
	Over third	5	5	6	16	4.12
History of abortion	No history	103	115	91	309	79.63
	1 times	28	18	9	55	14.17
	2 times	7	5	5	17	4.38
	Over 3 times	1	4	2	7	1.80
Total		139	142	107	388	100

Table 3. Past History of Postpartum Patients Related with Gynecologic Disease

	Gynecologic disease	Number	Percentage
Uterus	Uterine myoma	18	4.68
	Adenomyosis	4	1.04
	Endometriosis	11	2.86
	Uterine polyp	2	0.52
	Uterine synechia	1	0.26
	Cervicitis	2	0.52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5	1.30
	Cervical cancer	2	0.52
	Cervical incompetence	4	1.04
	Appendix	Polycystic ovarian syndrome	8
Ovarian cyst		5	1.30
Tubal stenosis		1	0.26
Breast	Benign tumor	4	1.04
	Malignant tumor	1	0.26

2. 내원시기의 특성

1) 내원일

내원일을 월별 분석 하였을 때, 4월이 40명(10.3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8월 39명(10.05%), 7월 38명(9.79%), 5월 37명(9.54%), 2월 및 6월 34명(8.76%), 3월 및 9월 33명(8.51%), 10월 31명(7.99%), 12월 26명(6.70%), 1월 22명(5.67%) 순이었으며 11월이 21명(5.41%)으로 가장 적었다(Table 4).

2) 출산일로부터 내원일까지의 기간

출산일로부터 내원일까지 평균 기간은 131.5 ± 214.6 일 이었으며, 1개월 이내 108명(27.84%), 1개월 ~ 2개월 74명(19.07%), 2개월 ~ 3개월 46명(11.85%), 3개월 ~ 4개월 47명(12.11%), 4개월 ~ 5개월 20명(5.15%), 5개월 ~ 6개월 14명(3.61%), 6개월 ~ 7개월 15명(3.87%), 7개월 ~ 8개월 10명(2.58%),

8개월 ~ 9개월 9명(2.32%), 9개월 ~ 10개월 9명(2.32%), 10개월 ~ 11개월 3명(0.77%), 11개월 ~ 12개월 1명(0.26%), 12개월 이상이 32명(8.25%)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The Number of Postpartum Patients according to Visiting Month

Month	Number	Percentage
January	22	5.67
February	34	8.76
March	33	8.51
April	40	10.31
May	37	9.54
June	34	8.76
July	38	9.79
August	39	10.05
September	33	8.51
October	31	7.99
November	21	5.41
December	26	6.70
Total	388	100

Table 5. The Number of Postpartum Patients according to Duration from Delivery Date to Visiting Date

Period	Number	Percentage
Within a month	108	27.84
1~2 months	74	19.07
2~3 months	46	11.85
3~4 months	47	12.11
4~5 months	20	5.15
5~6 months	14	3.61
6~7 months	15	3.87
7~8 months	10	2.58
8~9 months	9	2.32
9~10 months	9	2.32
10~11 months	3	0.77
11~12 months	1	0.26
Over 12 months	32	8.25
Total	388	100

3) 초진 이후 내원 횟수

초진을 포함하여 같은 주소로 평균 1.91±1.7회 내원하였으며, 1회 내원 209명

(53.87%), 2회 내원 106명(27.32%), 3회 내원 39명(10.05%), 4회 내원 15명(3.86%), 5회 이상 내원은 19명(4.90%)이었다(Table 6).

Table 6. The Number of Postpartum Patients according to Visit Count under Same Chief Complaints

Visit count	Number	Percentage
1 time	209	53.87
2 times	106	27.32
3 times	39	10.05
4 times	15	3.86
Over 5 times	19	4.90
Total	388	100

3.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특성

1) 보조생식술 시행 여부

연구 대상자 중 자연임신을 한 산모는 369명(95.10%),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여 임신을 한 산모는 19명(4.90%)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The Number of Postpartum Patients according to Natural Pregnancy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2015 (%)	2016 (%)	2017 (%)	Total (%)
Natural Pregnancy	133 (95.68)	140 (98.59)	96 (89.72)	369 (95.10)
ART				
Intrauterine insemination	4 (2.88)	0 (0)	1 (0.93)	5 (1.29)
In vitro fertilization	2 (1.44)	2 (1.41)	10 (9.35)	14 (3.61)

2) 임신성 질환의 이환 여부

연구 대상자 중 임신성 질환에 이환된 산모는 총 28명(7.22%)이었다. 그 중 임신성 당뇨가 12명(42.86%)으로 가장 많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5명(17.86%),

임신성 소양증 4명(14.29%), 임신 중독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각각 2명(7.14%) 순이었으며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 출혈, 임신성 혈소판 감소증은 각각 1명(3.57%)으로 가장 적었다(Table 8).

Table 8. The Number of Postpartum Patients Diagnosed with Gestational Disease

Rank	Gestational disease	Number	Percentage
1	Gestational diabetes	12	42.86
2	Gestational hypothyroidism	5	17.86
3	Gestational pruritus	4	14.29
4	Gestational hyperthyroidism	2	7.14
4	Pre-eclampsia	2	7.14
6	Gestational bleeding	1	3.57
6	Gestational hypertension	1	3.57
6	Gestational thrombocytopenia	1	3.57

3) 산모의 체중 변화

연구 대상자 중 임신 전 체중, 만삭 체중, 내원 당시의 체중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229명 산모의 임신 전 평균 체중은 54.21±7.32 kg, 만삭 평균 체중은 67.2±8.42

kg, 내원 당시의 평균 체중은 58.95±8.15 kg였다(Table 9).

출산일로부터 내원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만삭 평균 체중과 내원 당시의 평균 체중 차는 다음과 같다(Table 10).

Table 9. The Comparison of Average Body Weight (BW)

	A*	B†	C‡	B-A	C-A	C-B
Average BW (kg)	54.21±7.32	67.2±8.42	58.95±8.15	12.99±4.99	4.74±4.69	-8.24±3.57

* A : before pregnancy, † B : full-term pregnancy, ‡ C : visiting date

Table 10. The Difference of Average BW between Full-term Pregnancy and Visiting Date according to Duration from Delivery Date to Visiting Date

Period	Number	The difference of average BW
Within a month	68	-7.97
1~2 months	44	-7.95
2~3 months	29	-8.83
3~4 months	23	-8.43
4~5 months	10	-8
5~6 months	8	-9.5
6~7 months	9	-8.45
7~8 months	6	-8.67
8~9 months	4	-6
9~10 months	4	-8.25
10~11 months	5	-7.6
Over 12 months	19	-8.79

239명(61.6%),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한 산모는 149명(38.4%)이었다.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에서 시행 원인으로 제왕절개의 과거력 42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기 양막 파수 12명(8%), 태위 이상 9명(6%), 분만 지연 8명(5.4%), 다태아 분만 7명(4.7%), 유도분만 실패 5명(3.4%), 협골반, 조기진통, 전치태반, 양수과소증, 경관개대지연, 거대아, 거대한 자궁근종이 각각 3명(2%), 과도한 진통, 임신 중독증, 노산, 분만 중 출혈과다, 산모의 선택이 각각 2명(1.34%), 태아의 태변 흡입, 태아 호흡부전, 태반 조기 박리, 유착태반, 과도한 자궁수축, 자궁 파열, 용모양막염, 양수과다증이 각각 1명(0.7%)으로 가장 적었다(Table 11).

5) 분만 형태

연구 대상자 중 자연분만을 한 산모는

Table 11. Classification of Postpartum Patients by Delivery Type

Delivery type	Reason	Number
Natural	-	239
	Previous caesarean delivery	42
Caesarean	Premature rupture of amniotic membrane	12
	Malpresentation	9
	Prolonged labor	8
	Multiple birth	7
	Failed induction of labor	5
	Others	39
	Unknown	27

6) 내원 당시 오로 배출 및 모유수유 여부
연구 대상자 중 내원 당시 오로 배출 이 진행 중인 산모는 167명(43.04%)이었으며,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는 262명(67.53%)이었다(Table 12).

Table 12. The Number of Postpartum Patients Discharging Lochia and Breast Feeding at First Visiting Date

Item	State	Number	Percentage
Discharging lochia	Ongoing	167	43.04
	Already terminated	221	56.96
Feeding	Formula feeding	126	32.47
	Exclusive breast feeding	139	35.82
	Partial breast feeding	123	31.71

4. 산후병의 특성

1) 주소

주소가 되는 산후병의 증상은 관절통 217명(55.93%), 기력저하 58명(14.95%), 냉감 53명(13.66%), 부종 18명(4.64%), 발한과다 13명(3.35%), 현훈 9명(2.32%), 하복통 7명(1.80%), 소화장애 3명(0.76%), 열감, 대변이상, 소변이상은 각각 2명(0.5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4명(1.03%)이 있었다. 기타에는 체중감량, 오로배출지연, 하혈 등이 속했다(Table 13).

2) 동반증상(복수응답 가능)

주소를 포함하여 현재 호소하고 있는 동반증상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관절통 322명(82.99%), 수면장애 192명(49.48%), 냉감 176명(45.36%), 기력저하 130명(33.51%), 발한과다 92명(23.71%), 대변이상 80명(20.61%), 부종 79명(20.36%), 현훈 72명(18.56%), 소화 장애 63명(16.24%), 소변 이상 22명(5.67%), 하복통 20명(5.15%), 열감 15명(3.8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17명(4.38%)이 있었다. 기타에는 한 열왕래, 체중감량, 오로배출지연, 하혈 등이 속했다(Table 14).

Table 13. Chief Complaints of Postpartum Patients

Rank	Chief complaints	Number	Percentage
1	Arthralgia	217	55.93
2	General weakness	58	14.95
3	Cold sensation	53	13.66
4	Edema	18	4.64
5	Sweating disorder	13	3.35
6	Dizziness	9	2.32
7	Lower abdominal pain	7	1.80
8	Digestion disorder	3	0.76
9	Heat Sensation	2	0.52
9	Defecation disorder	2	0.52
9	Urination disorder	2	0.52
-	Others	4	1.03
	Total	388	100

Table 14. Other Accompanied Symptoms of Postpartum Patients including Chief Complaints (Multiple Responses)

Rank	Accompanied symptoms	Number	Percentage
1	Arthralgia	322	82.99
2	Sleep disorder	192	49.48
3	Cold sensation	176	45.36
4	General weakness	130	33.51
5	Sweating disorder	92	23.71
6	Defecation disorder	80	20.61
7	Edema	79	20.36
8	Dizziness	72	18.56
9	Digestion disorder	63	16.24
10	Urination disorder	22	5.67
11	Lower abdominal pain	20	5.15
12	Heat sensation	15	3.87
-	Others	17	4.38

관절통의 부위에 따라서는 손목과 손가락이 213명(54.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부 128명(33%), 슬부 125명(32.22%), 견부 52명(13.40%), 천추부 35명(9.02%)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의 양상에 따라서는 빈각이 130명(3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면 93명(23.97%), 난입면 45명(11.60%), 다몽 2명(0.52%) 순으로 나타났다.

발한과다의 부위에 따라서는 전신이 31명

(7.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부 19명(4.90%), 배부 9명(2.32%), 흉부 및 수족부 각각 7명(1.80%), 경항부 4명(1.03%), 액와부 1명(0.26%)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특정 부위에는 29명(7.47%)이 있었다.

대변이상의 양상으로는 변비가 61명(15.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사 16명(4.12%), 변비·설사 교대 2명(0.52%), 혈변 1명(0.26%) 순으로 나타났다.

부종의 부위에 따라서는 하지가 22명

(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지 15명(3.87%), 전신 11명(2.83%), 안면 5명(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특정 부위에는 30명(7.73%)이 있었다.

소화장애의 양상으로는 더부룩함이 40명(10.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속 쓰림 8명(2.06%), 상복부 통증 7명(1.80%), 오심

6명(1.55%), 상복부 팽만(0.26%)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변이상의 양상으로는 빈뇨 및 잔뇨감 각각 8명(2.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금 6명(1.55%), 횡뇨 1명(0.2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5).

Table 15. Accompanied Symptoms in Detail (Multiple Responses)

Classification	Details	Number	Percentage
Arthralgia	Wrist and finger	213	54.90
	Lumbar region	128	33.00
	Knee	125	32.22
	Shoulder	52	13.40
	Sacral region	35	9.02
Sleep disorder	Difficulty in maintaining sleep	130	33.51
	Light sleep	93	23.97
	Failure to fall a sleep	45	11.60
	Dreaming a lot	2	0.52
Sweating disorder	Whole body	31	7.99
	Head	19	4.90
	Back	9	2.32
	Chest	7	1.80
	Hands and feet	7	1.80
	Neck	4	1.03
	Axilla	1	0.26
Defecation disorder	Unspecific site	29	7.47
	Constipation	61	15.72
	Diarrhea	16	4.12
	Shift between constipation and diarrhea	2	0.52
Edema	Hematochezia	1	0.26
	Lower extremity	22	5.67
	Upper extremity	15	3.87
	Whole body	11	2.83
	Face	5	1.29
Digestion disorder	Unspecific site	30	7.73
	Bloating	40	10.30
	Heartburn	8	2.06
	Upper abdominal pain	7	1.80
	Nausea	6	1.55
Urination disorder	Distension	1	0.26
	Urinary frequency	8	2.06
	Feeling residue of urine	8	2.06
	Urinary incontinence	6	1.55
	Oliguria	1	0.26

3) 치 료

증상에 대한 한방 처치로 한약 치료는 356명(91.75%), 침 치료는 150명(38.66%), 구 치료는 122명(31.44%)의 산모에게 시행되었다(Table 16). 세부적으로는 한약 단독 치료가 215명(5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한약치료+침구치료 114명(29.38%), 한약치료+침 치료 27명(6.96%), 무 처치 23명(5.93%), 침구치료 8명(2.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 단독 치료는 1명(0.26%)으로 가장 적었다(Table 17).

Table 16. The Number of Postpartum Patients according to Treatment

Types of treatment	Number	Percentage
Herbal medicine	356	91.75%
Acupuncture	150	38.66%
Moxibustion	122	31.44%

Table 17. Detailed Type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Postpartum Patients

Types of treatment	Number	Percentage
HM*	215	55.41
HM+ACUP†+MOXA‡	114	29.38
HM+ACUP	27	6.96
ACUP+MOXA	8	2.06
ACUP	1	0.26
No treatment	23	5.93
Total	388	100

* HM : herbal medicine, † ACUP : acupuncture, ‡ MOXA : moxibustion

4) 한약 다빈도 처방

연구 대상자 중 356명의 산모에게 한약이 처방되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한약이 처방된 경우 각각에 포함시켰다. 그 중 芎歸調血飲加味方이 134회(29.59%) 처방되어 가장 빈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生化湯 84회(18.54%), 五積散加味方 77회(17%), 二陣湯合四物湯加味方 55회(12.14%),

補虛湯加味方 31회(6.84%), 女科三瘕湯 23회(5.08%), 八物湯加味方 14회(3.09%), 滋陰健脾湯 6회(1.32%), 補益湯 3회(0.66%) 순으로 처방되었다. 이 외의 처방들은 26회(5.74%) 처방되었으며 그 종류로 加味六君子湯, 減肥散, 當歸芍藥湯, 獨活寄生湯, 分心氣飲, 四物湯加味方, 柴胡四物湯, 十全大補湯加味方, 雙和湯, 五苓散, 元氣生脈散, 益氣補血湯, 人蔘養營湯, 調經種玉湯, 行氣香蘇散, 行滯湯, 荊防地黃湯, 荊防敗毒散, 荊防敗毒散合四物湯 등이 있다(Table 18).

Table 18. Distribution of Herbal Medicine Treatment for Postpartum Patients

Herbal medicine	Frequency	Percentage
<i>Gungguijohyeol-eum-gamibang</i>	134	29.59
<i>Saengwhoa-tang</i>	84	18.54
<i>Ojeok-san-gamibang</i>	77	17
<i>Yisa-tang-gamibang</i>	55	12.14
<i>Boheo-tang</i>	31	6.84
<i>Yeogwasambi-tang</i>	23	5.08
<i>Palmul-tang-gamibang</i>	14	3.09
<i>Jaeumgeonbi-tang</i>	6	1.32
<i>Boik-tang</i>	3	0.66
Others	26	5.74
Total	453	100

IV. 고 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¹²⁾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출산율은 1.22로, 출산율이 급감한 이래 계속해서 저출산의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저조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주 요인으로 출산 및 양육비의 부담, 전반적인 경제 및 고용상황 불안, 아이 돌봄 시설 부족 등의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보

고되었다¹³⁾.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후 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 부인과의 대표적 진료 영역 중 하나인 산후병으로 내원하는 산모의 특성과 그 증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학교 한방병원 여성의학센터에 처음 내원한 산모 388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388명의 평균 연령은 만 33.73±3.62세, 만삭모의 비율은 91.75%, 초산모의 비율은 51.8%, 유산의 경험이 있는 산모는 20.37%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¹⁴⁾ 2016년 전국 산모의 평균 연령은 32.4세, 만삭모의 비율은 92.63%, 초산모의 비율은 52.4%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내에서 내원 연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산의 과거력에 관한 통계 자료는 분석된 바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5년 기준 15-49세 기혼 여성의 임신 소모율이 22.2%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¹⁵⁾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산의 경험이 있는 산모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진 내원일의 월 별 분포에서는 4월이 10.3%로 가장 많았고, 11월이 5.4%로 가장 적었다. 이를 토대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외부 기온이 비교적 높은 4월부터 9월까지 전체 연구 대상자의 57%가 내원하였으며 비교적 외부 기온이 낮은 10월부터 3월까지 43%가 내원하였다. 이는 외부 기온이 높은 계절에 실질적으로 인공적인 寒邪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여름에 산후풍 환

자가 증가한다는 장 등⁸⁾의 연구 결과 및 산후풍을 주소로 하는 외래 내원 환자여름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우 등⁵⁾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출산일로부터 산후병을 주소로 여성의학센터에 내원하기까지 평균 131.5±214.6일이 소요되었다.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내원한 산모는 49.61%으로 연구 대상자의 약 반수에 해당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산욕기의 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산후 100일 이내를 ‘百日爲度’, 산후 1개월을 ‘小滿月’, 산후 2개월을 ‘大滿月’로 표현하여 산욕기의 초기 처치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¹⁾.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6주간 증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관찰한 김 등⁷⁾의 연구에서 산후병의 대부분의 증상이 산후 6주에 걸쳐 발생함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증상의 발생 시기에 맞추어 산욕 초기에 대부분의 산모가 내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대상자는 산후병을 주소로 하여 평균 1.91±1.7회 내원하였으며, 2회 이하로 내원한 산모는 전체의 81.19%에 해당하여 증상의 경과 관찰을 위한 내원 횟수는 적은 편이었다. 그 원인으로 산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져 모든 임신부가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는 것에 비해 여전히 산후 관리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편임을¹⁶⁾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원 횟수에 대한 분석 보다는 산후병의 치료 종료까지의 기간 및 내원의 종료가 경과의 호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자 중 229명의 임신 전, 만삭, 내원 당시의 체중을 분석한 결과 임신 전부터 만삭까지 평균 체중은 12.99±4.99

kg 증가하였으며, 만삭으로부터 내원 당일까지는 평균 체중이 8.24 ± 3.57 kg 감소하였다. 이는 분만 후에도 완전한 체중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체중 저류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내원까지 소요된 기간에 따라 만삭 체중과 내원 당시 체중 차의 평균을 분석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임신 중의 체중 증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사회생활이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진 여성은 산후에 생기는 비만이 임신 전의 미용 상태와 미래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다수 인식하고 있으므로¹⁷⁾ 산후병의 치료 시 산후 체중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만 형태에서는 연구 대상자 중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한 산모는 전체의 38.4%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기준 통계청 발표 자료¹⁸⁾의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39.1%인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제왕절개를 시행하는 가장 흔한 4가지 적응증은 선행 제왕절개술, 난산, 둔위, 태아곤란증으로 전체의 85% 이상이 위 적응증에 의해 이루어진다¹⁹⁾. 본 연구에서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149명의 대상자 중 4가지 적응증에 해당하는 산모는 선행 제왕절개술 42명, 난산 8명, 태위이상 9명과 과도한 자궁수축,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소증, 임신중독증, 거대아, 태변 흡입, 태아 호흡부전 등의 원인으로 태아 곤란증이 유발되었거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15명을 합하여 총 74명,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한 산모의 49.67%에 해당하여 85%

에 크게 못 미쳤다. 그 원인으로는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전적으로 임상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안전 분만을 위하여 과잉 진단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에 비하여¹⁹⁾ 본 연구는 실제 진단명이 아닌 산모의 문진 결과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져 실제 태아 곤란증이라 진단된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모유는 생후 첫 6개월 간 영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이상적인 식품으로¹⁾ 모유수유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 모유수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완전 모유수유율은 18.3%에 불과하였다²⁰⁾. 실태조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 완전 모유수유율이 35.82%로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자의 많은 수가 모유수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내원하였다는 점과 모유수유의 정의에 있어서 완전 모유수유는 출생 직후부터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인 것으로 정의하는 WHO 기준과 본 연구의 기준이 상이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산후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소증과 동반증상을 분석하였을 때 관절통이 주소증과 동반증상에서 각각 55.93%, 82.99%의 가장 높은 비율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산후풍 환자의 실태를 분석한 장 등¹¹⁾의 연구에서 관절통으로 대표되는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42.13%로 가장 높은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산후 관절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임신 중 relaxin 분비 증가에 의하여 관절의 가동성이 증가하는 모체의 생리적 변화에 의한 것도 있지만,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한방 외래 다빈도 질병 통계자료²¹⁾에 근거하였을 때 상위 10개의 질병 중 9개의 질병이 모두 근육 또는 관절과 관련된 질병인 것으로 보아 관절통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한방 선호도 자체가 높은 것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의 주소증과 동반증상을 분석한 결과 특이하게도 수면장애와 대변이상을 주소로 하는 환자는 각각 0명, 2명이었으나 주소 이외에 수면장애와 대변이상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는 각각 192명, 80명으로 상당 수였다. 실제로 산모들은 임신 기간에 비해 출산 후 평균 수면시간이 1.5시간 짧아지고, 24시간 동안 3회 이상의 수면 삽화가 일어나며 수면의 효율성이 낮고 매일 극심한 수량의 변화를 겪는다. 이와 같은 산육기의 모성 수면 장애는 영아의 수면 양상, 수유 리듬, 기저귀 갈기 등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양육 시 배우자의 도움이 적은 경우 모성의 수면장애는 더욱 악화된다고 보고되었다²²⁾. 대변이상 증변비는 한의학적으로 產後病瘵, 鬱冒와 함께 產後三病의 하나로 산후에 營血이 驟虛하고 津液이 虧耗하여 腸管을 滋潤하지 못하므로 腸燥하여 발생한다 하였다¹⁾. 해부학적 측면에서는 질식 분만의 과정에서 부교감신경이나 골반신경 분지에 손상을 주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²³⁾ 서양의학에서는 산육기에 외상이 과도하고 활동량이 적어짐으로써 복부나 골반 저부의 근육이 이완되고 대장의 연동운동이 감소하여 발생한다 하였다¹⁹⁾. 뿐만 아니라 약물적 요인으로 임신 제 2삼분기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권고되는 철분제 복용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¹⁹⁾.

주요 호소 증상들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관절통은 손목과 손가락의 통증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후 요부, 슬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후풍 환자의 실태를 분석한 장 등¹¹⁾의 연구에서 완관절, 요부, 슬부의 순으로 관절통을 호소하였다는 결과와 거의 일치하며, 엄 등²⁴⁾의 연구에서는 요부, 슬부, 완관절 순으로 나타나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산모들이 호소하는 관절통의 주된 부위는 일치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수면장애는 빈각, 천면, 난입면, 다몽 순으로 나타났으나 육아로 인하여 수면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몽을 제외하고 빈각, 천면, 난입면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모호할 뿐 아니라 각각이 서로를 유발하는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후 수면장애의 세부 구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산후병의 한방 처치에서 한약 치료를 받은 산모는 91.75%로, 침 치료와 뜸 치료가 각각 38.66%, 31.44%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었으며 한약 단독 치료 역시 55.41%로 한약치료와 동시에 침 치료 또는 뜸 치료가 시행된 경우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산모들의 외래 평균 내원 횟수가 1.91±1.7회임을 고려하였을 때, 한약 치료가 최소 진료로 장기간 치료를 지속할 수 있으면서 육아 등으로 인하여 내원 여건이 되지 않는 산모들에게 원격 진료를 통한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약 처방은 芎歸調血飲加味方이 가장 많이 처방되었다. 《東醫寶鑑》에서 芎歸調血飲은 ‘產後去血過多 以致發熱, 心煩, 腹痛, 頭暈眼花, 或口噤, 神昏’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출산 후에 발생하는 기혈부족을 보하고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 빈용된다²⁵⁾. 최 등²⁶⁾의 연구에서는 芎歸調血飲加味方을 산욕 초기의 산모에게 복용하게 하였을 때 산후병의 개선에 유효함을 보였다.

芎歸調血飲加味方 뿐 아니라 生化湯, 五積散加味方, 二陣湯合四物湯加味方 등 산후에 빈용되는 처방들의 방의를 고려하였을 때, 산후병의 병인으로 氣血不足 뿐 아니라 瘀血, 痰飲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瘀血은 생리적 기능을 상실한 혈액이 응체하여 형성된 상태로 혈액순환장애와 혈액속도감소의 병리 상태를 포괄하는 한의학적 개념이다²⁷⁾. 임신 중 생리적으로 증가한 혈액량이나 태아의 자양을 위하여 생성된 부속물들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을 경우, 瘀血의 측면에서 통증을 비롯한 각종 병리적 변화가 유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女以血爲主’라 하여 여성의 치료시 補血, 活血祛瘀의 치법은 다용되고 있으나 痰飲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²⁸⁾. 痰飲은 진액이 정상적인 운화를 하지 못하여 체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결과로 발생하는 병적 산물이다²⁹⁾. 痰飲과 瘀血은 부동한 병리산물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靈樞 邪客論》에서는³⁰⁾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이라 하여 痰飲과 瘀血이 동원이 됨을 말하고 있으며 《醫學入門》에서는³¹⁾ ‘痰乃津液血所成’, 《血證論》에서는³²⁾ ‘血積卽久 亦能化爲痰水’라 하여 痰飲과 瘀血이 각각 선후가 되어 병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겸하여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하였다. 특히 임신부나 산부는

비임신, 비출산 상태에 비하여 거동의 제한으로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바 있어 痰飲의 정체로 인한 병리적 변화가 나타나기 쉬우며 산모가 호소하는 저림이나 사지 말단 통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痰飲이 작용할 수 있다²⁹⁾. 이를 종합할 때 무조건적인 補氣血이 산후병의 치료에 능사가 아니라 산후병의 多虛, 多瘀한 특성에 입각하여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최근 3년 간 산후병으로 내원한 환자의 초진 기록을 토대로 하여 내원 환자의 특징과 산후병의 증상을 분석하였다. 2010년 산후풍 환자의 실태를 분석한 장 등¹¹⁾의 연구가 10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3배 이상 많은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여전히 정확한 통계적 분석을 하기에는 표본의 숫자가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석된 데이터의 대부분이 객관적 수치가 아닌 문진을 통해 기록된 정보라는 점에서 문진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으로 내원한 환자의 특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향후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산후병 환자의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과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산 후 ○○대학교 한방병원 여성 의학센터에 산후병으로 처음 내원한 산모 38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평균 연령은 만 33.73±3.62세, 만삭모는 356명(91.75%), 초산모는 201명(51.81%), 유산의 과거력이 있는 산모는 79명(20.36%), 부인과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산모는 총 63명(16.24%)이었다.
2. 내원 시기의 특성에서 내원 월은 4월(10.31%)이 가장 많았고 11월(5.41%)이 가장 적었다. 출산일로부터 내원일까지 평균 기간은 131.5±214.6일이었다. 초진 이후 평균 내원 횟수는 1.91±1.7회였다.
3.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특성에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여 임신을 한 산모는 19명(4.90%), 임신성 질환에 이환된 산모는 28명(7.22%), 만삭 체중과 내원 당시 체중 차의 평균은 -8.24±3.57 kg,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한 산모는 149명(38.4%), 내원 당시 오로 배출 중인 산모는 167명(43.04%), 모유수유를 진행 중인 산모는 262명(67.53%)이었다.
4. 산후병의 특성에서 주소증은 관절통 217명(55.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력저하, 냉감, 부종, 발한과다, 어지럼증, 하복통, 소화장애, 열감, 대변이상, 소변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5. 산후병의 특성에서 동반 증상은 관절통 322명(82.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면장애, 냉감, 기력저하, 발한과다, 대변이상, 부종, 어지럼증, 소화장애, 소변이상, 하복통, 열감 순으로 나타났다.
6. 증상에 대한 한방 처치로 한약 치료를 받은 산모가 356명(91.75%)으로 가장 많

았고, 芎歸調血飲加味方이 134회(29.59%) 처방되어 가장 빈용되었다.

Received : Jul 13, 2018

Revised : Jul 17, 2018

Accepted : Aug 22, 2018

References

1.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2. 3rd edition. Seoul: Eui Seong Dang Publishing Co. 2016:715, 718, 764, 833.
2. An SH.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Korean Traditional Postpartum Care Performance and Postpartum Health Statu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1):37-46.
3. Yu EK, et al. Development of WISE HHSanhujori guideline. Seoul: Korean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3:297.
4. Jeong YS, Kwon YD.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Postpartum Care Servic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7;11(1):143-58.
5. Woo HL, et al. Analysis on Chief Complaints of Outpatients Visiting Korean Gynecology Clinic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in Gangdong-gu, Seoul. J Korean Obstet Gynecol. 2017;30(1):29-41.
6. Koo JS, Lee YJ, Seo BI. Clinical Report of Various Postpartum Symptoms.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7;38(1):112-4.

7. Kim PH, et al.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on Symptoms of the Postpartum Women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during Six Weeks after Childbirth. *J Korean Obstet Gynecol*. 2017;30(4):114-34.
8. Jang SR, Kim DC. A Case Report of Postpartum Disease with Hyperhidrosis and Finger Pain. *J Korean Obstet Gynecol*. 2015;28(3):128-35.
9. Choi KH, et al. A Case Report of Postpartum Disease with Hyperhidrosis and Finger Pain. *J Korean Obstet Gynecol*. 2013;26(4):204-12.
10. Kim SH, et al. A Case Report of Postabortal Syndrome Patient. *J Korean Obstet Gynecol*. 2014;27(4):97-108.
11. Jang SR, Park YS, Kim DC. The Clinical Analysis of 104 Sanhupung Patients that visited at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3):192-204.
12. KOSIS. Population Consensus(2012 ~2016)[Cited March 25, 2018]. Available from: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_1B81A21&conn_path=I2.
13. Jeong YS, Kwon YD.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Postpartum Care Servic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7;11(1):143-58.
14. KOSIS. Population Consensus(2012 ~2016)[Cited March 25, 2018]. Available from: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_1B81A20&conn_path=I2.
15. KOSIS. Survey on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welfare[Cited March 25, 2018].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_33101N317&conn_path=I2
16. Lee SY. Prenatal and Postnatal Car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236:37-50.
17. Park JK, Kim TH.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Postpartum BMI Change in Some Postpartum Women. *J Korean Obstet Gynecol*. 2008;21(4):139-49.
18. KOSIS. Survey on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welfare[Cited March 25, 2018].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_33101N404&conn_path=I2
19. The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Obstetrics*. 5th edition. Seoul:Gunja. 2015:191, 362-3, 416, 765.
20. Choi EJ. Breastfeeding-relate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249:72-81.
21. Healthcare Bigdata Hub. Multi Frequency Disease Statistics[Cited March 26, 2018]. Available from:<http://opdata.hira.or.kr/op/opc/olapHifrqSickInfo.do>
22. Kim ME, Hur MH. Sleep Quality, Fatigue, and Postpartum Depression of Mother at Six Months after Deliver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20(4):266-76.

23. Choi JS, Myung SJ, Byeon JS. Alimentary Tract :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hronic Constipation after Radical Hysterectomy or Delivery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004;44(5):267-74.
24. Um ES, Lee DN, Park KM. Clinical Investigation for Various Postpartum Symptoms. J Korean Obstet Gynecol. 2001;14(1):365-79.
25. Heo J. Donguibogam. Gyeongnam: Donguibogamchulpansa. 2006:1798-9, 1808-10.
26. Choi SY, et al. A Study on the Changes of Early Puerperium Symptoms and Blood Stasis Index of Women Taking *Gungguijohyeol-eum-gamibang*. J Korean Obstet Gynecol. 2018;31(1):1-19.
27. Cho DI, Kim SH. The Bibliographical Study of Prescription for Eliminating Blood stasis. Journal of Haehwa Medicine. 1997;5(2):265-79.
28. Ha JY, et al. Women's diseases recognized by the Dam-eum. Journal of oriental medical thermology. 2010;8(1):33-8.
29. Park JS, Kim MY, Park YJ. Preliminary Study on Pattern Questionnaire for Damum Pattern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2006;10(1):54-63.
30. Hong WS. Jenggyohwangjenaegyeongyeongchu (精校黃帝內經靈樞). Seoul: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298.
31. Lee C. Shingyopyeonjoouihagimmun-Ha (新校編世醫學入門下). Seoul:Daesungmunhwasa. 1994:265.
32. Dang JH. Xuezhenglun(血證論). Shanghai: Shanghaiyinminchulpanbu. 1997:88.